
**kai C.
kim**

PORTFOLIO

RESUME



■ 성 명 : 김개천 金開天

국민대 조형대학교수이며 건축가와 실내디자이너이다. 동국대 선학과에서 동양철학과 선사상을 전공하였으며, 「명목의 건축」, 「미의 신화」 등 한국 미(美)의 조형사상과 현대건축 사상에 대한 저서와 논문들을 발표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이면서 동양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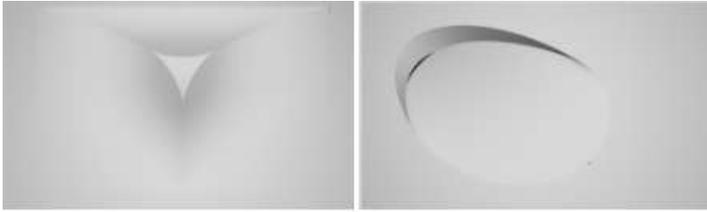
2003년 디자이너로서의 업적과 작품을 인정받아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훈하였다.

소속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스페이스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명예회장
- 한국건축가협회 초대작가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초대작가
- 2012 핵안보 정상회의 디자인 자문교수
- 2011 대통령 기념관 자문교수

수상경력

- 2013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 근정포장 수훈
- 2010 아시아태평양공간디자이너협회(APSDA) APSDA EXCELLENT AWARD 수상
- 2009 RED DOT DESIGN AWARD 건축부문 수상
- 2009 IFI AWARD (세계 실내건축가연맹) 수상
- 2008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스> 수상
- 2008 한국실내건축가협회 <골든 스케일 베스트 디자인상> 5회 수상
- 2005 문화관광부 선정 올해의 우수도서 선정 <명목의 건축>



하이막스로 만든 세면대, Full moon . Dark moon 2011

대림 B&CO와 LG하우시스 공동으로 제작한 세면대로서 인체의 모습과 닮고 그믐달과 보름달 같은 디자인이다.



중국 곡강 주차빌딩 계획안, 2011

천막으로 된 공간은 낮에는 빛으로 그윽하고 밤에는 자동차의 불빛으로 움직이고 변하는 디지털건축 같은 모습이 된다.



WHITE BAMBOO, Seoul Design Fair , 2010

서울 디자인 페어의 국제전시장 큐레이터로 디자인한 것이다. 하얀 플라스틱 대나무는 전시가 끝나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의자가 되어 쓰레기 zero가 된다.



동화 카트러스트(Cartrust), 2010.

동화그룹의 자동차 전시 및 판매장으로 주변의 공장 건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한 경제적이거나 새로운 건축이다.



나무공간 (Wood Space), 2007

대성목재의 직원 휴게실로 공장의 직원들이 만든 제품인 나무판재만을 사용하여 전체를 마감했다.



CJ 연수원 Concept 모델, 2011

자신은 Super Zero인 디자인이나 천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둥근 빛으로 단순하나 다양한 공간이 된다.



페이지 갤러리 (PAGE Gallery), 2010

종이처럼 가볍고 하얀 물위에 떠있는 것 같은 공간으로 전위적이지는 않으나 새롭고 낯선, 쓸쓸하나 화려한 곳이다.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 (Kookmin University Conference Hall), 2009

등근 사각형의 공간으로 등을 소등하기에 따라 빛이 된 그림자도 있고 그림자가 된 빛도 있는 그림자만으로 만든 공간이 된다. 아시아 태평양 실내디자인협회 Excellent Award 수상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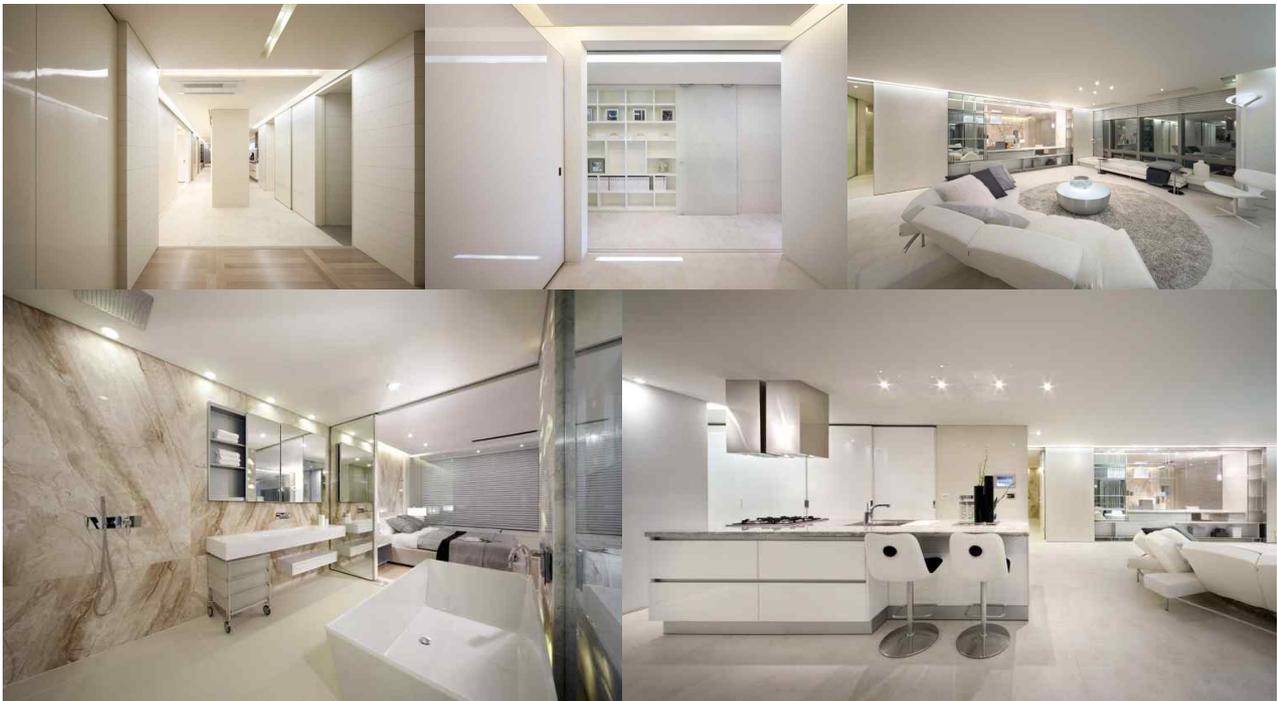
담담원 (談談園), 2008

국민대 조형대학의 운동 좌식 강의실이다. 열리고 닫힘이 자유로워 모호하고 모든 게 계속 미끄러지기만 한다.



회재 (懷齋), 2010

양평에 있는 주택으로 자연과 단절되어 보이면서도 자연을 내부로 유입하여 외부가 내부이고 내부가 외부가 된다..



경동 제이드 아파트, 2009

모든 공간이 유동적인 문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탄력적 공간이다.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집이 된다.



신 용산 APT, 2012

건강하고 자유롭고 예술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아파트로서
상상 그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 집을 디자인 해보았다.



유재, 2006

도시의 주택이나 자연 속에 있으면서 도시를 관망하게 하는 열린 집으로
모든 게 벽체 뒤에 숨어있고 반사하고 비춘다.



강하(江下)미술관, 1999

일획의 콘크리트벽은 거대하나 내부에선 사라진다. 긴 벽은 벽아래 흐르는 물결로 끊임없이 흔들거린다.



중국 서안 종합 전시장 Extension, 2011

원형의 단순한 공간으로 무수한 빛들을 허공에서 끌어내며 자신은 숨이 된 듯 조경으로 둘러싸여 윗부분만을 드러낸다.



동부센트레빌주택문화관, 2009

둔연한 덩어리 같아 빛도 색도 형태도 없는 건축이고 싶었다. 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한 작업이다.



국제 선 센타, 2010

전통의 현대화가 아닌 현대를 전통화 한 국제 선 센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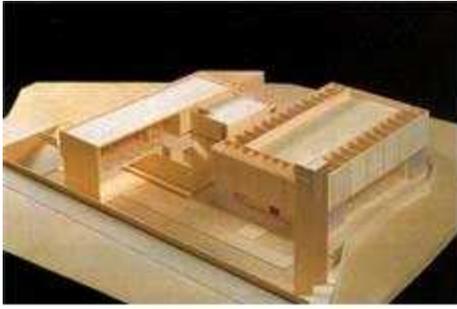
Break House, 2009

바닷가에 지워질 기업의 휴게실로서 건축이기 보다는 무정형의 구멍들이다.



옥토끼이미징사옥, 2013

수평의 단순한 프레임은 프레임 없는 건축이 되어 도시의 주변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한다.



한길교회, 2000

한지로 마감 된 온돌 교회로써 전통과 현대성의 경계에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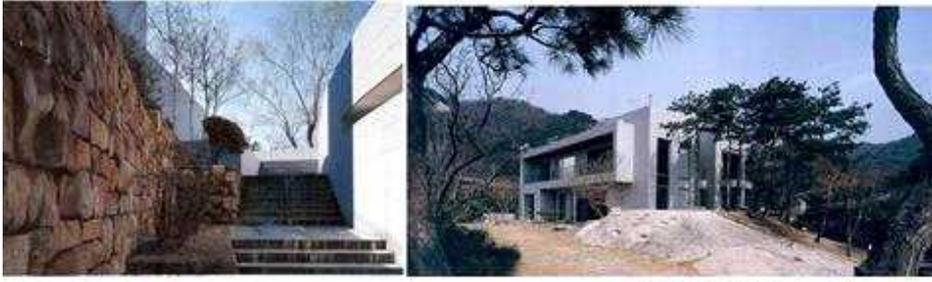
정토사, 1998

이곳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하지 않는다. 익명처럼 존재하며 종교 그 자체가 되려고 한다.



만해마을 만해사, 2006

허공의 일획과 같은 건축 속에서 만해스님과 만날 수 있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곳이다.



중암, 2004

기존의 자연과 나무들을 그대로 살리고 건축과 하늘과 자연이 서로 스며들어 그 중심에 건축이 있게 하였다.



봄 스테이 펜션,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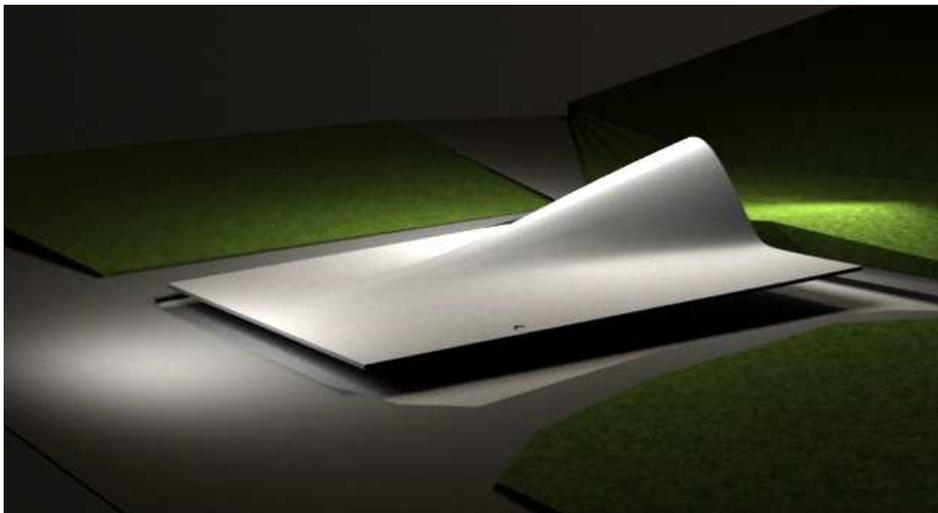
SK건설 주택문화관

보기만 해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형식으로 막힌 듯 열려있고 곡선 같으나 직선의 달빛과 같은 건축이다.



지재(紙齋), 2011

종이처럼 얇고 가벼우나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전경이 되는 Hyper Pad와 같은 집을 설계 하였다.



강화미술관 파밀리온, 2014

당신은 실내 디자이너인 동시에 건축가다. 또한 철학을 전공하기도 하였다.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통합적인 배경을 지닌 디자이너, 건축가 때로는 학자이자 예술가이기를 원한다. 모든 것에 열려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과 삶에 관심이 많다.

디자이너와 건축가의 경계를 짓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를 건축가 보다는 디자이너로 소개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건축을 할 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하고 있다. 세간에는 디자이너가 상업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건축가 혹은 예술가와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디자인과 예술을 분리해 바라보는 것이다. 이 시대는 예술이 디자인이 되려고 하는 시대이다. 디자인은 경제적이기에 오히려 순수하고 통합적인 삶이 된다.

개천절에 태어난 이유로 '開天'으로 이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운명론을 믿지 않는 이들도 선생의 이력과 작업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상관성을 생각해 볼만한 이름이다.

이름 덕분에 어릴 때부터 '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다. 등소평처럼 사람이 크고 이름은 작아야 하는데 나는 이름은 큰데 사람이 작다. 키만 크다.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에서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과 철학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선생이기에 실제 커리큘럼을 통해 전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과거의 전통에는 관심이 없다. 동양철학을 전공했지만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많다. 철학은 내게 많은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의 모호함과 창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명묵(明默)의 건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고건축에 대한 이해, 종교적 성찰, 철학적 사유가 깃든 이 책은 곧 김개천이라는 건축가의 모든 것이 응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한자어가 많아서인지 완독하기가 녹록지 않은 책이다.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되기를 원하면서 쓴 책도 아니다. 마치 고 건축처럼 볼 때마다 다르게 생각되고 받아들여지는 책이었으면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달리 해석되고, 달리 느껴지는 것이 전통건축의 힘이다.

함축적인 디자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클라이언트가 없다면 선생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간 클라이언트와의 궁합은 어떠했나.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편했다. 내 디자인에 대해 대부분의 건축주가 받아들여 주었다. 사실 주장하기 보다는 받아들여려고 하는 편이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클라이언트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 새로운 세계를 담으려 하지만 소통하려고 한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오히려 클라이언트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삶은 덤이고, 공간만이 주인인 듯한 디자인이 한동안 너무 유행했다.

어떤 디자이너들은 건축적인 아름다움, 감동, 즐거움, 그리고 너무 현학적인 말들을 얘기한다. 하지만 건축적 개념은 삶과는 별개인 가치이다. 삶의 실상은 아름다움, 편리함, 건강, 자유, 행복 등 일상의 모드를 포함한다. 이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삶이 별개인 것보다 다른 개념이다. 나는 일상적이면서도 지적이고 천박하면서도 자유로운 건축을 하고 싶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건축이 곧 삶이되기를 바란다. 신성하고 신선한 일상이라고 할까?

선생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건축.

선생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은 무엇인가?

일상의 모든 것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비행기 날개, 비누거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요즘은 제자들로부터도 얻고, 아이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일도 있다. 손톱 밑의 때 등 그러나 내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미래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넘어서서 선생이 이상적인 건축물로 꿈꾸는 것이 있다면 들려 달라.

순경이나 역경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형식의 건축을 생각하고 있다.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모호하고 광대한 집. SUPER ZERO와 같은...

선생이 말한 Less but More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말한 'Less is More'가 떠오른다. 미니멀리즘도 생각나고, 그러나 'is'와 'but'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꽤 큰 것 같다.

Less와 More는 내게 등가가 아닌 양립하는 개념이다. Less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More가 된다. More가 되는 순간 But 다시 Less가 된다. 이 둘은 양립하는 동시에 합쳐지고 순간적으로만 존재한다. 음양의 원리와 비슷하다. 다르게 존재하지만 합쳐지기도 하는 '비유비무(非有非無)' 같은 것이다.

우문일지 모르지만 건축가로서의 삶, 만족하나?

내 삶이 건축 혹은 디자인 그 자체가 되길 원한다. 세상의 끝에 서서 더 멀리 바라보고 싶다.